

[25]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https://hdl.handle.net/2324/7432733>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25, 2025-03-2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挨拶



出水 薫（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長）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第25号をお届けします。

私は昨年4月、第7代のセンター長に就任しました。それ以前は、元兼センター長の下で、副センター長を務めていました。法学研究院に所属しており、韓国の政党政治や選挙、日本の自治体政治や選挙区政治を研究しています。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は1999年末に学内組織として設立され、2002年4月に文部科学省令第28号に基づく「学内共同教育研究施設」となりました。私は学内組織としての準備段階から本センターにかかわってまいりました。今や四半世紀を経て、準備段階からの参加者で、現役として九州大学に所属しているのは、私だけとなっています。つまりセンターは、四半世紀の実績の上に、世代交代と次なる展開が求められる地点にさしかかっています。

深川博史元センター長の下で、伊都キャンパスへのセンターの移転と、移転後の環境整備がおこなわれました。さらに元兼正浩前センター長の下で、所蔵資料の図書館移管や電子化、組織再編などが進められました。2024年度は、それらを踏まえ、次世代に継承できる持続可能なセンターへの移行に一步踏み出す年となったと思います。

しばしば誤解されやすい点ですが、韓国研究センターは、「韓国」（大韓民国）のみを研究する組織ではありません。センターの英語表記は、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です。つまりセンターは地域研究としての Korean Studies を促進する組織です。この英語表記を策定する際に意識されたのは、朝鮮半島の南北両政府のみならず、「在日」や高麗人など朝鮮半島に由来する集団などを包摂する朝鮮語・韓国語圏でした。そして、それを研究するのが地域研究としての Korean Studies であるというのがセンター設立以来の位置づけです。九州大学は「総合知で社会変革を牽引する大学」を目指していますが、本センターは、発足時からすでに、人文・社会科学の個別専門領域を超えた、領域横断的な「総合知」を模索し探求してきたと言えます。

とはいえ、やはりセンターは、これまで朝鮮語・韓国語圏と向き合う研究＝同言語圏「を」対象とする研究が中心であったことは否めません。ただ今後は、同じ対象に共に向き合う研究＝朝鮮語・韓国語圏「と」、あるいは「で」行う研究も積極的に取り組む必要があります。そこで昨年度は「理系」部局所属のセンター教員の拡充をおこない、「文理融合」型センターの性格を強めています。

2024年度は、前年度をかなり上回る数の事業をおこないました。単独主催事業が8件、共催事業が9件に上り、単純計算では毎月、何らかの事業を実施していることになりました。10月29日には、九州韓国研究者フォーラム、ソウル大学日本研究所、ソウル大学国際学研究所と共催で、ソウル大学を会場に国際合同研究会「ポスト1965年体制」研究一日韓関係の過去と現在」を開催し、この間停滞していたソウル大学との共同研究を再開しました。また九州大学のアジアウィークに合わせ、11月7日には広く一般に公開して講演会&ミニシンポ「K-POPの時代を語る」（九州韓国研究者フォーラムと共催）を開催し、また同月9日には韓国より現

役の新聞記者と弁護士をお招きし、シンポジウム「韓国におけるメディアと人権」（九州韓国研究者フォーラム、九州大学アジア・オセアニア研究教育機構社会クラスターと共催）も開催しました。いずれも、これまでの韓国研究センターの事業の枠を超え、広く学外に開かれたかたちで実施した新機軸の企画でした。

また例年同様、外国人客員研究員として延世大の李ヘレン先生と、崇実大の白旻旼先生をお招きし、センターの研究推進に貢献していただきました。

2024年度の年報は、これも新機軸として、研究特集を組んでいます。これは現在センターが Korea Foundation の支援を受けて進めている研究プロジェクトのひとつである「ポスト1965年体制」研究プロジェクトの研究成果を掲載するものです。年報では次年度以降も、特集を組み、センターの学術的成果を発信していきます。

そして、言うまでもなく2025年は、朝鮮半島が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て80周年（日本の敗戦80周年）であり、また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の節目の年です。あらためて朝鮮・韓国語圏や韓国との歴史を顧みる必要があります。センターでは、すでにソウル大学との共同学会議をはじめとして複数の事業を準備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2025年度は、Korea Foundation や在福岡大韓民国総領事館、九州韓国研究者フォーラムなどの学外機関・団体のご支援と協力をいただきながら、前年度以上に多くの事業を推進し、日本語圏における Korean Studies の発展に貢献し、広く研究成果を国内外に発信していきます。

한국연구센터 센터장 인사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연보 25호가 간행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2024년 4월, 제7대 센터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모토카네 센터장 아래에서 부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법학연구원 소속으로, 한국 정당정치 및 선거, 일본의 지자체 정치 및 선거구 정치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는 1999년 말 학내조직으로 설립된 후, 2002년 4월 문부과학성령 제28호에 기반해 「학내공동교육연구시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내조직으로 설립되는 준비단계부터 본 센터에 관여해 왔으며, 준비단계부터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오직 저만이 현역으로 규슈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즉, 본 센터는 4반세기에 이르는 실적을 지니는 센터로서, 이제는 세대교체와 더불어 다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개가 요구되는 지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카가와 히로시 센터장 시기에 이토캠퍼스로의 센터 이전과 이전 후의 환경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모토카네 마사히로 센터장 시기에는 소장자료의 도서관 이관 및 전자화, 조직개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2024년도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센터로의 이행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점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연구센터는 「한국」(대한민국)만을 연구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본 센터의 영문 표기는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센터는 지역연구로서의 Korean Studies를 촉진하는 조직입니다. 센터의 영문 표기를 정할 때 의식했던 것은, 한반도의 남북 양 정부 뿐만 아니라, 「자이니치(在日)」 및 고려인 등 한반도를 유래로 하는 집단 등을 포괄하는 조선어·한국어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 지역연구로서의 Korean Studies라는 것이 본 센터가 설립 이후 계속해서 가져왔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슈대학은 「종합적 지식을 통해 사회 변혁을 견인하는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본 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이미, 인문·사회과학의 개별 전문영역을 넘어선, 횡단적인 「종합 지식」을 모색하고 탐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센터가 이제까지 조선어·한국어권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같은 대상을 함께 바라보는 연구 = 조선어·한국어권 「과」, 혹은 「에서」 수행하는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4년도에는 「이공계」 소속의 센터교원을 확충하여, 「문리융합」형 센터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의 수에 있어서도 전년도를 훨씬 넘어서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센터 단독 주최 사업이 8건, 공동주최로 이루어진 사업이 9건으로,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도 매월 하나 이상의 사업을 실시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에는 규슈한국연구자포럼, 서울대 일본연구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대학에서 「「포스트 1965년 체제」 연구 -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개최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서울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규슈대학 아시아위크에 맞춰, 11월 7일에는 일반 대중의 폭넓은 참여 속에 강연회 「K-POP 시대를 말하다」(규슈한국연구자포럼과 공동개최)를 개최하고, 또한 같은 달 9일에는 한국에서 현역 신문기자와 변호사를 초청해 심포지엄 「한국의 미디어와 인권」(규슈한국연구자포럼, 규슈대학아시아·오세아니아연구교육기구사회클러스터 공동개최)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이제까지 해온 한국연구센터의 사업 틀을 넘어서, 보다 열린 형태로 실시한 새로운 축의 기획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년도에도 그 동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객원 연구원으로 연세대 이헬렌 선생님과 숭실대 백경민 선생님을 초청함으로써, 센터의 연구 활동 추진에 많은 공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2025년은 한반도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지 80주년 (일본 패전 80주년) 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조선·한국 어권 및 한국과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이미 서울대학교의 공동학술대회를 포함해,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재후 쿠오카 대한민국총영사관, 규슈한국연구자포럼 등의 외부 기관·단체들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전년도 이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본어권에 있어서의 Korean Studies 의 발전에 공헌하고 연구성과를 국내외로 널리 발신해가고자 합니다.